



2022년 법무사시험

민법(1차) 총평

1. 출제부분 (괄호 안은 2021년 기출상황)

- ① 민법총칙 6문제(10문제), 물권법 10문제(12문제), 채권총론 9문제(7문제), 채권각론 10문제(6문제), 친족법 3문제(3문제), 상속법 2문제(3문제),
- ② 조문 문제 24지문(20지문), 판례 문제 176지문(180지문)
- ③ 사례형 문제 2문제(1문제), 박스형 문제 1문제(1문제)

2. 출제분량

11쪽 1/2(2021년 13쪽).

3. 출제경향 분석

- ① 2022년 법무사 1차 민법 시험은 2021과 비교할 때 출제분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출제경향은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결요지를 그대로 길게 출제하는 방식의 판례 지문들과 전원합의체 판례의 반대의견이 정답인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시험도 역시 법무사시험에서는 판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판결요지 전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하고, 더 나아가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에는 반대의견까지 숙지해 두어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② 그리고 사례형 문제 2개와 박스형 문제 1개가 출제되었는데 모두 난이도가 ‘上’ 이었습니다.
- ③ 따라서 위 두 가지 요소에 비추어 볼 때, 올해에는 수험생들의 민법 평균 점수가 작년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합격 가능한 수험생들의 민법 점수가 25~27개 사이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본 강사의 「조문·판례 중심 민법강의 cafe」 교재로 꾸준히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무난히 30개 이상 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에도 2014년~2022년 법원행시·법원사무관·법원서기보·법무사시험에서 이미 기출된 문제들이 상당수 출제되었으므로 본 강사와 함께 공부한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민법에서 충분히 고득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커트라인 예상 : 작년 기준으로 민법은 +2개로 예상

올해 민법시험의 합격선은 작년보다 2문제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2023년 시험대비 민법 공부방향

- ① 2022년 법무사 민법시험도 역시 법무사시험의 핵심은 조문과 판례에 대한 충실한 숙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 준 시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민법 조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암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민법판례의 체계적 정리 및 이해가 법무사시험에서는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판례의 판결요지를 길게 그대로 출제하였다는 점에서, 본 강사가 지속적으로 강조한 것처럼 더 이상 '키워드 중심의 요약식 판례공부'를 통해서는 법무사 2차 민법은 말할 것도 없고 법무사 1차 민법시험조차 통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 ② 따라서, 2023년 법무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법무사시험 출제경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수험계획을 짜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수험기간을 단축하는 지름길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③ 2023년 대비 민법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대비 1순환 강의계획서와 2022. 9. 1.(목)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학원설명회 때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 ④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법무사시험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모든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복잡하고 어렵고 내용도 많은 본 강사의 민법강의에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합격합니다!!!

2022. 8. 29.

박호근 법무사 드림